



그러나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직접적인 큰 성과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리한 국제적 지위와 이를 이용한 일본의 외교활동으로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에서 열강의 반응은 언제나 임시정부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 되었고, 미국, 영국, 중국 등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국가들도 임시정부의 승인요청을 피하기만 하였던 것이다.

물론 한중관계는 사실상의 국가승인관계였으며, 한미관계도 겉으로는 매우 우호적이었으나 정식 외교관계의 수립은 광복할 때까지 이루지 못하였다. 단지 중국의 순문정부와 폴란드 망명정부 그리고 프랑스 망명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정도로 결과 면에서는 외교적 성과는 미온한 것이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정부의 형태를 띠고 그 시대적 소임을 다하였던 것이다. 즉 임시정부는 비록 광복할 때까지 세계열강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지만, 임시정부가 3·1독립운동의 역사적 산물로서 수립되었고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적 저항단체로서 오랫동안 구심점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민족의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유일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를 오늘의 뿌리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국가보훈처 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발췌)

한편, 1990년부터 정부행사로 지정되었으며 광복회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약사보고를 한다.